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아주 난리다. 연이어 터지는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부끄러운 뉴스에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놀라지도 않는다. 아니, 세상은 이미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버린 듯하다. 교회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조금이라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 교회만이 세상에 구원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바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전주새중앙교회를 담임하는 홍동필 목사는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한 답을 갖고 있다. 홍 목사에 의하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바로 교회다운 교회이다.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제자 훈련이다. 지난 17년간 전주새중앙교회를 담임한 홍동필 목사는 이 목적을 가지고 목회에 전념했다. 그가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네 번이나 경험할 만큼 육체적으로 연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5~6개 반이나 직접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 결과, 전주새중앙교회는 전주 시내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홍동필 목사로 하여금 목회에 보람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정말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앞장서는 평

신도 동역자가 된 것이 홍 목사에게는 더 기쁘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한 영혼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닮은 제자로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전주새중앙교회와 홍동필 목사에 대해 이제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건강한 교회의 증거 1. 신천지를 이기는 교회

전주새중앙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를 말해주는 한 예가 있다. 바로 한국 교회를 뒤흔든 신천지와 관련된 일이다. 전주새중앙교회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신천지 회원이 들어왔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번번이 힘도 못쓰고 다시 신천지로 돌아갔다. 이로 인해 자존심이 상했는지, 신천지측은 전주새중앙교회에 고위급 간부를 파송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홍동필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감쪽같이 속은 것이다. 그런데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된 사건이 있었다. 신천지 간부인 그가 다락방 모임에서 성경공부를 하다가 순장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때부터 그는 이 순장에게 아주 난해한 질문을 던졌다.

물론 순장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해 찢찢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천지 간부는 자신 있게 신천지의 교리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던 순원 중 한 명이 '어?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말을 한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라며 반기를 들었다. 그 순원은 전주새중앙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10년째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였다.



홍동필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과(B. Th.)를 졸업하고,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석사(M. div.),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석사(조직신학전공, Th. M.), 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BTS) 목회학박사(D. Min.)를 받았다. 현재, 전주새중앙교회 담임목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사, 합신세계선교회(PMS) 이사, 소련선교회 이사, 학원복음화협의회(전북) 이사 등으로 섬기고 있다.

그러자 그때부터 그 신천지 간부는 다락방에서 더 이상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신천지의 교리를 말하면 대번에 순원들로부터 '다르다'는 반응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 뒤에 그 사람이 신천지의 고급 간부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그 신천지 간부도 전주새중앙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주새중앙교회에는 신천지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신천지의 전략이 얼마나 교묘한가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 이미 신천지의 공격에 넘어가 소위 '박살난'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신천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반 성도들이 신천지 회원을 가려낼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됐다면, 전주새중앙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 중에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또 어디 있겠는가?

건강한 교회의 증거 2. 담임목사가 신뢰받는 교회

전주새중앙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성도들이 담임목사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동필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지금까지 성도와 일대일로 식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당회원하고도 없습니다. 이유는 ‘담임목사가 누구만 편애한다, 자기 사람을 만든다’는 식의 오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였고, 이 사람하고 식사를 하면 또 저 사람하고도 식사를 해야 하는데 제가 그럴 만한 체력이나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우리 교회에 ‘내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특히 평신도 지도자들은 전부 다 내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까지 17년간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한 번도 당회가 제 의견에 반대 의견을 표한 적이 없습니다.”

박시용 장로는 홍 목사의 말에 대해 이렇게 증언한다.

“저희 교회 당회원 사이에는 담임목사님의 목회에 만족 결



지 않는다는 일종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임목사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때문입니다. 담임목사님은 한 번도 한 눈을 판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심 없이 목회를 하십니다. 때론 우리를 너무 엄하게 혼내셔서 좀 섭섭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한번도 목사님의 개인적인 감정을 우리에게 표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 다 이유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홍동필 담임목사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 예가 있다. 2002년 당시, 180여 명 정도 모이던 전주새중앙교회는 새롭게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결정했다. 시세로 30억 짜리 공사였다. 홍동필 목사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건축을 시작할 때 재정부에 남은 돈이 겨우 몇십만 원밖에 없었지요. 더군다나 그때는 IMF의 여파로 다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사용하던 예배당은 너무 좁았기 때문에 새로 건축을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겁도 없이 제직회에 ‘여기 땅이 나왔는데 이 땅을 사서 새 예배당을 건축했으면 좋겠다’고 안건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제 의견을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문제는 계약을 하려면 10%의 계약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건축을 진행할 만한 재정도 준비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180명 모이는 교회에서 30억짜리 건축을 추진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반적으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담임목사의 리더십에 반발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이미 신천지의 공격에 넘어가 소위 '박살난'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신천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반 성도들이 신천지 회원을 가려낼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됐다면, 전주새중앙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 중에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또 어디 있겠는가?

있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전주새중앙교회에서도 약 30여 명 정도가 그 이유로 교회를 떠나갔다. 하지만 남은 150

여 명은 홍동필 목사와 마음을 모으고 모든 건축 과정을 무사히 마쳤다. 게다가 건축을 하는 기간에도 교회는 성장했다.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을 수 있었을까? 박시용 장로는 이렇게 대답했다.

“건축 초창기에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교회를 떠난 어떤 성도가 ‘건축으로 재정이 어렵다면 선교비 지원을 줄이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담임목사님의 대답은 ‘건축 때문에 선교비를 줄여야 한다면 건축을 하지 말자’는 것이었어요. 예배당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며, 건축 때문에 선교비를 줄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 모두 우리 목사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인지 이해하게 됐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목사님의 뜻에 마음을 모으게 됐습니다.”

사실, 아직도 당시 건축비를 다 지불하지 못해 빚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최근에 전주새중앙교회는 부족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히려 15억짜리 교육관을 또 구입했다.

홍동필 목사는 이런 결정이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이 안건을 교회에 내놓았다고 한다. 그런데 홍 목사의 걱정은 기우였다. 홍 목사가 15억짜리

교육관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광고하는 순간, 성도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건강한 교회의 증거 3. 복음이 살아 있는 교회

전주새중앙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또 다른 증거에 대해 홍동필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부임 초창기에 대각성전도집회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새중앙교회 수석 부목사였던 저는 대각성전도집회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속으로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엄청 준비하고 노력해서 집회를 열었는데, 태신자들이 몇 명이나 왔을까요?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앞에서 담임목사만 요란하게 움직였지 성도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거지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것을 고치기 위해 엄청 노력했어요. 심지어 장로 며느리에,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더라도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직분을 안 줍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 입장에는 새로 온 담임목사가 힘들게 신앙생활을 시키니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거죠.”

홍 목사가 처음 전주새중앙교회에 부임했을 때, 어린아이들까지 합쳐서 50여 명 정도 모이던 이 교회는, 예배당 지붕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 중 누구 하나 그것을 고치지 않고 놔두던 교회였다.

홍 목사는 그런 성도들을 한 명씩 만나서 복음을 가르쳤다. 밤 8시에 시작된 대회는 거의 대부분 12시가 되어야 끝났다. 때론 불이 없어서 그냥 깜깜한 밤에 돌아앉아 이야기



를 나누면서 복음을 가르쳤다. 그렇게 일대일 양육을 마친 다음 홍 목사는 성도들과 제자훈련을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홍 목사는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대신에 본인이 직접 전도하러 다녔다. 대학 캠퍼스와 병원으로 매일 전도를 하러 나갔다. 그렇게 홍 목사가 전도해서 온 새신자가 1년 만에 기존 성도 수만큼 됐다. 전도에 대한 홍 목사의 열정은 그치지 않았다. 새 예배당을 건축한 뒤에도 홍 목사는 매일 밤마다 나가 남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홍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제 머릿속에는 사영리, 브릿지, 전도폭발 등 모든 전도 관련 프로그램이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할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담임목사가 먼저 전도에 앞장 서자 전주새중앙교회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그래서 대각성전도집회 때 단 한 명의 태신자도 데려오지 않던 성도들이 이제 매주 5일이나 전도를 나갈 정도로 복음에 미친 자들이 됐다.

어떤 성도는 아예 사비로 전도 전용 트럭을 구입해서 전도에 사용할 정도로 헌신적이다. 그러다 보니 현재 사용하는 예배당으로 이전해 온 2003년부터는 새신자 등록 인원이 매

년 현격히 증가하여, 2010년 12월 현재 주일 낮 예배에 출석하는 장년 성도들이 약 700여 명에 이른다.

7년 만에 150명에서 700여 명으로 교회가 성장한 이유가 단순히 새 예배당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언제든지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가 있기 때문이다. 홍 목사는 이에 대해 이렇게 대답한다.

“솔직히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성도들 중에 5명 중 4명은 수평이동 신자들이예요. 이게 참 마음의 부담이 돼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수집사 이상 중직자들은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새신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교회는 복음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다가 제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 말이 ‘목사님 설교는 알아듣기 쉽고 딱 얘기 안 해서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주새중앙교회에 등록하는 5명 중 1명이 완전 초신자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방 교회로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 아닐 수 없다. 1000명 정도 출석하는 지방의 모 교회에서 1년에 새신자가 30명 정도 등록했는데 그들 대부분이 수평이동 신자였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전주새중앙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단순 수치만 따지더라도, 지난 7년간 이 교회에 새로 등록한 550명 중 약 130명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란 얘기다.

그리고 직업이나 가정 때문에 이사를 가지 않는 한, 대부분이 교회에 정착하여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전주새중앙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다. 복음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복음이 살아 있기 때문에 영적 갈증을 느낀 사람들이 전주새중앙교회를 찾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새신자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이다.

건강한 교회의 증거 4.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섬기는 교회

전주새중앙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네 번째 증거는 온 교회가 연약한 지체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기 때문이다. 박시용 장로는 전주새중앙교회를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교회’라고 소개했다.

“우리 교회는 참 따뜻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챙겨주고, 특히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성도가 병원에 입원하면, 그가 입원하는 기간 동안 심방대원들이 서로 순서를 정해놓고 차례대로 심방을 합니다. 한 번에 우르르 몰려가면 남은 입원 기간 동안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심방을 가는 겁니다. 병원 심방을 하더라도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퇴원할 때까지 방문을 합니다. 또 교회가 점점 커지다 보니 잘 모르는 성도들도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성도들에게 더 많이 찾아가합니다. 특히 그런 분들의 경조사가 발생하면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도와주고 함께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참 따뜻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주새중앙교회 성도들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다. 처음 홍 목사가 부임해서 제자훈련을 위해 가정을 오픈해야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남의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느냐?’며 ‘밤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이웃들에게 폐가 되고, 집은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돼야 한다’며 자기 집을 오

픈하는 것조차 거절했었다.

그래서 홍 목사는 먼저 자기 집을 오픈하여 성도들을 초청하고, 훈련생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면서 마음을 여는 법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서서히 자기를 열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성도들은 어느새 홍 목사가 기대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돌아보는 이들로 변해 있었다. 홍동필 목사는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했다.

“얼마 전 제자훈련을 마치고 직장 때문에 경기도로 이사를 간 한 형제의 아내가 갑자기 서울에서 갑상선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함께 훈련을 받은 동역자들에게 아내의 수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그 동역자들이 직장을 마치고 밤에 모두 모여서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병문안을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다시 전주로 내려와서 아침에 곧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사실 이미 멀리 이사로 갔고, 또 내일 직장에 출근을 해야 하니까 얼마든 전화로 위로해주고 끝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모두 모여서 직접 서울까지 가서 병문안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옛날 같았으면 생각도 못했을 일이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전주새중앙교회는 전주 시내에서도 남성 소그룹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로 유명하다. 그래서 이런 소문을 듣고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 홍 목사의 증언이다. 박시용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학생이라면 좋은 선생님과 좋은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지난 7년간 이 교회에 새로 등록한 550명 중 약 130명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란 얘기다. 그리고 대부분이 교회에 정착하여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전주새중앙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공부하고 싶듯이, 성도라면 누구나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겁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 새로 등록하는 성도들이 참 많은데, 그 중 대부분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는 경우예요. 수평이동이라면 저도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 영혼을 생각하면 그들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가 그들의 입장이었더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비결 1. 진리를 드러내는 훈련

앞서 우리는 전주새중앙교회가 신천지의 공격에도 꺾여없이 있는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전주새중앙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진리를 드러내는 훈련에 있다. 이에 대하여 홍동필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복음이지요. 그래서 목회자는 어떤 사역에서든지 이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 진리만을 전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자훈련이나 다락방도 성경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면, 성도들 스스로 그 진리에 자신을 비추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자훈련 교재가 너무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자훈련 교재 2권에서 다루는 교리만 제대로 가르쳐도 성도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거



홍 목사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 매일 각기 다른 버전으로 번역된 한글과 영어 성경을 꾸준히 읽고, 특별히 강해설교를 준비할 때면 최소한 100번 이상 해당 성경 본문을 읽고 준비를 해서 설교한다.

든요.”

순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김훈 집사는 홍동필 목사에 대해 이렇게 증언한다.

“목사님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으세요. 저희가 어리석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때까지 가르치십니다. 어떤 때는 한 과를 이틀 동안 다룬 적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대충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로 알았는데,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태도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자훈련뿐만 아니라 주일 설교에서도 홍 목사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노력한다. 박시용 장로는 “우리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성경이야기 외에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않

는다”며 홍 목사의 모습을 증언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홍 목사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는 사실이다. 매일 각기 다른 버전으로 번역된 한글과 영어 성경을 꾸준히 읽고, 특별히 강해설교를 준비할 때면 최소한 100번 이상 해당 성경 본문을 읽고 준비를 해서 설교한다. 성경만 아니라 신학서적을 읽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는데, 그의 사무실을 가득 채운 책들이 그것을 증명한다. 홍 목사뿐만 아니라 홍 목사의 가족 전체가 독서광인데, 홍 목사의 아내인 이근

옥 사모는 이미 처녀시절에 2만 권의 책을 읽었고, 홍 목사의 아들은 대학생 시절 1년에 150여 권의 책을 읽을 정도였다고 한다. 홍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목회자로서 가장 보람 있을 때는, 성도들에게 진리가 들어가서 그들이 진리에 반응을 할 때입니다.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살아난 영혼들이 참 많은 교회예요.”

하지만 홍동필 목사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어떤 때는 잘 되는데 어떤 때는 전혀 열매가 없거든요. 그럼 낙심되고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저 열심히 진리를 전할 뿐이고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비결 2. 성령께서 주도하는 변화

전주새중앙교회를 담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홍동필 목사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때”라고 대답했다. 홍 목사의 말을 들어보자.

“바뀐 줄 알았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한테는 안 맞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는 정말 이 사람들이 바뀔 수 있을지조차 의심이 가더라고요. 옆에서 아내가 저에게 ‘당신이 여기서 하는 만큼만 하면 서울에서는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됐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내의 말이 고맙기는커녕 제게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사람을 네가 바꿀 수 있니? 그건 내가 할 일이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같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제 교만을 회개했어요.”

홍 목사는 “이 교회에 온 지 9년째 되던 해부터 성도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다”고 했다. 그때는 바로 지금의 예배당을 건축하던 시기이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선은 사람들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 그리고 뒤에서 남 욕하는 것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자훈련 하러 가는 길에 제가 버젓이 앞에 있는데도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을 홍보고 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런 부분을 혼냈는지 몰라요. 그래도 고쳐지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모습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대답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김훈 집사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대답한다.

“옛날에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뒤에서 홍보고 비난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뒤에서 함께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그를 품어주고 기다려줍니다.”

김 집사는 자신도 성령께서 놀랍게 변화시키셨다고 고백했다.

“저는 사역훈련을 마치고 순장으로 섬기면서도 술담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었어요. 담임목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 만날 때마다 말씀하셨는데 잘 안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교회에서 안수집사 투표가 있었는데, 부끄럽게도 제가 후보에 올랐어요. 결과는 보기 좋게 떨어졌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축복이었다고 믿습니다. 술담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제가 안수집사로 교회의 중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로 보나 저 개인적으로 보나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때 성령께서 제 안에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없다’는 강력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자 그렇게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던 주초 문제가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시작한 지가 올해로 23년째지만 결론은 ‘내 힘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깨닫고 변화가 일어나지, 목회자가 아무리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해도 안 바뀝니다.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진리를 제대로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홍동필 목사는 또 다른 사례를 소개했다.

“예수 믿는 아내를 핍박하고 매일 술로 살았던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갑자기 식물인간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그분을 위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조금씩 차도를 보이더니 결국 교회를 출석하고 새벽기도까지 나올 정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에 지원해서 성실하게 훈련받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될 정도로 변화의 폭이 컸습니다. 이런 분을 보면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요.”

홍 목사는 계속 말을 이었다.

“제가 제자훈련을 시작한 지가 올해로 23년째지만 결론은 ‘내 힘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깨닫고 변화가 일어나지, 목회자가 아무리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해도 안 바뀝니다.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진리를 제대로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비결 3. 목숨 걸고 포기하지 않는 목회자의 열정

지난 17년간 홍 목사는 자신의 말처럼 진리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주새중앙교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홍동필 목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홍 목사가 처음 담임으로 부임했을 때만 하더라도

도 전주새중앙교회는 척박한 목회 환경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전주 시내이지만 환경은 거의 시골과 다를없는 곳이었고, 그런 외적인 조건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상태가 거의 최악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부임해서 한 집에 심방을 갔어요. 그런데 온 집안에 쓰레기와 똥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 것을 치우지 않고 사는 사람이 더 대단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 집 심방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속으로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해 왔을 때, 성도들이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파리를 쌀지 안 쌀지 결정할 겁니다’라고 하더군요. ‘앞으로 목사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고 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부임 6개월 만에 제가 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마침 그때 괜찮은 곳에서 청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지나가는 식으로 말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알아들으면 남으라는 뜻인 줄 알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감시다’라고 했어요. 그때는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슨 교육 시간에 제가 슬쩍 ‘우리 교회야 뭐 목사가 없어도 되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런데 맨 뒤에 앉아 있던 젊은 여 집사가 갑자기

기 막 올면서 ‘우린 어떡하라고’라고 소리를 치고 텅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내가 뭘 말을 했는데 그러냐’고 하고 달래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보파리 풀자고.”

홍동필 목사는 그 여 집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고백한다. 그것은 비록 황무지와 같은 목회 환경을 가진 이 교회도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이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 교회를 맡기기 원하신다는 것이었다. 홍 목사는 그때부터 다른 마음은 절대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여러 번 좋은 교회로부터 청빙 제안이 들어왔지만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다고 했다. 심지어 육체적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 죽을 고비를 네번이나 경험하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됐지만 지금도 일주일에 6번의 훈련 시간을 직접 인도하고 있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홍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나 스스로 봐도 참 불쌍하다 싶어요. 얼마 전에 두 번 연속으로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골다공증이 70대 노인 수준이래요. 아마 매일같이 앉아서 제자훈련 하니까 진액이 다 빠졌나 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돈 벌려고 목숨 내놓고 일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도 못해서야 되겠어요? 난 좋아요. 그냥 이렇게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듯이, 나도 내가 만난 예수님 생각하면 지금도 감격스럽고, 그래서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비결 4. 선명하고 공유된 목표

마지막으로 전주새중앙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성도들 사이에 신앙생활에 대한 선명하고도 공유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목표는 바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이며, 그가 곧 예수의 제자요 작은 예수라는 것이 홍 목사의 주장이다. 김훈 집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한다.

“우리 목사님은 언제나 예수 제대로 믿으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시죠. 사람들은 도를 닦아서 공중부양을 하고, 기도로 사람들 쓰러뜨리고, 멀쩡한 이를 금니로 바꾸는 것에 관심을 갖지만 우리 목사님은 그런 것들은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대신 일상생활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 고민하라고 가르치세요. 사소하게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양말 벗어서 아무데나 놓지 않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홍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인간이지요. 물론 그것은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있고,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저는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 훈련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사다운 목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은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요.”

홍 목사는 평신도 지도자의 역할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외형적 조건에 관심 갖지 말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보고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평신도 지도자의 임무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만든다

신학교 재학 시절 제자훈련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제자훈련 목회를 접하고, 그래서 홍동필 목사로부터 제자훈련 목회를 배우기 위해 전주로 내려온 박정민 강도사는 자신이 보고 느낀 홍 목사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부교역자 중 한 사람으로서 우리 담임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제겐 큰 축복입니다. 목사님은 그야



옛날에는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 다 외우고 그 집 사정까지 속속들이 다 알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여줬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게 요즘 제일 고민이에요. 목자가 양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말로 제자의 삶을 실제로 사시는 분이세요. 제자가 되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은 제자로 살지 않는 목회자가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홍 목사님은 자신이 말씀하고 가르치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십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굉장히 인간적이시면서 철저히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 개인적으로 교역자 회의 시간에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아요.”

박 강도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홍동필 목사가 어떤 목회자인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홍 목사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박 강도사 혼자만이 아니다. 전주새중앙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박 강도사와 똑같은 말을 한다. 김훈 집사의 말이다.

“우리 목사님은 솔선수범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투명하세요. 제자훈련 시간에 우리 목사님은 자신의 약점과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세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도 참 대단한데, 목사님은 자신을 한없이 부족하게 여기시고 저희보다 더 노력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자신이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십니다. 목사님은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무엇보다 자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홍동필 목사. 오늘날 전주새중앙교회에 예수를 닮은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그들을 이끄는 목회자가 먼저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었다. ‘제자가 제자를 만든다’

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목자는 양을 알아야 한다

요즘 홍 목사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홍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교회가 갑자기 커지면서 성도들이 제 손 안에 다 들어오지 않게 됐어요. 옛날에는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 다 외우고 그 집 사정까지 속속들이 다 알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여줬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요. 숫자가 적어야 내 손이 다 미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쉽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또 크기가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요즘 제일 고민이에요. 교회 안에 교인 천 명, 만 명 모이면 뭐해요? 목자가 양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홍 목사의 고민을 들으면서 전주새중앙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목자가 양을 모르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홍 목사의 말은 목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끔 만든다.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주새중앙교회와 같이 교회다운 교회가 점점 많아진다면, 분명 세상은 교회를 통해 소망을 보게 되리라 확신한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목회자들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기도한다. ☺

〈박순종 목사〉